

한국자생으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경수목에 관한 소개(2)

심경구 / 성균관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 교수

본 호에서는 낙엽활엽관목 중 우리나라가 원산(原産)이나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등의 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조경수목 중에서 수수꽃다리, 개나리, 분꽃나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조경수목은 우리나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어 일반인이 선호하는 조경적 특성을 선별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되었다.

이 중에서 수수꽃다리는 우리나라에서 일명 '라일락'이라 불리어 원산(原産)이 서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한국, 중국, 등지가 원산으로서 옛부터 우리나라의 정원에 많이 식재된 수목이다. 또한 수고가 작은 왜성수수꽃다리는 미국에서는 각광을 받는 조경수목으로서 관목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왜성개나리는 우리나라가 원산인지도 모르고 최근에는 도리어 미국으로부터 역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분꽃나무 역시도 국내에서는 조경수목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꽃의 개화기간이 길고 향기가 짙으며 병충해에 대한 내성(耐性)이 있는 우리나라의 분꽃나무를 접목묘(接木苗)로 이용하여 개량종을 육성, 조경수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수수꽃다리(*Syringa oblata* var. *dilatata*, Korean early Lilac)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Nakai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한국에서 1917년 9월 21일 아놀드 수목원의 E.H.Wilson이 금강산으로부터 채집하여 미국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미국의 아놀드 수목원과 뉴욕의 브룩크린 수목원, 그리고 시카고의 몰튼 수목원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품종으로는 'Cheyenne'와 'Birohwood', 그리고 'Wildfire' 3품종이 있다.

그리고 Jewell Nursery, Inc., Heard Garden, Ltd.의 2개 조경수묘목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미네소타의 Jewell Nurseries, Inc.에서는 일반 수수꽃다리(Korean early Lilac)와 'Chey-

enne'를 수고 30cm묘목을 주당 \$2.75에, 樹高 45cm의 묘목은 주당 \$3.40에 수고 60cm의 묘목은 주당 \$4.45의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평남, 함남 등지가 자생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악산의 표고 1000m지역이 자생지로 알려지고 있는 설악산 수수꽃다리(*Syringa oblata* var. *donaldii*)는 1977년과 1978년 사이에 미국 국립수목원팀이 설악산 공원에서 채집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미국 국립수목원의 Donald Egolf박사에 의해서 육성되고 있다.

그리고 수수꽃다리에 비하여 작고 수형이 치밀한 정향나무(*Syringa meyeri* 'Palibin', Dwarf Korean Lilac)는 1908년 12월 F. N.Meyer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아놀드 수목원 및 몰튼, 위스콘신 수목원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판매는 Kankakee Nursery, Valley Hill Nursery, Concord Nursery, Imperial Nurseries, Heard

Gardens, Ltd. 등 51개 조경수 묘목판매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리노이의 kankakee 묘목 판매회사에서 수고 40cm의 묘목이 1주에서 29주까지는 주당 \$ 8.10에 30주 이상은 주당 \$ 7.90에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반 수수꽃다리는 수고 75cm의 묘목이 1주에서 29주까지는 주당 \$ 8.40에 30주 이상은 주당 \$ 7.90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네소타의 Jewell 묘목판매회사에서는 수고 30cm의 묘목을 주당 \$ 3.10에 수고 45cm의 묘목을 주당 \$ 3.75에 판매하고 있으며 오레곤의 Imperial 묘목판매회사에서는 수고 40~45cm의 묘목을 주당 \$ 10.75에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원산의 정향나무(Dwarf Korean Lilac)가 다른 품종에 비하여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산인 털개회나무(*Syringa patulae*=*Syringa vetulina*, Korean Lilac)는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강원도 통점역, 평남, 함남북 등지에 자생하고 있는데, 1895년 5월 20일 러시아 사람인 손탁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

미국으로의 도입은 1917년 E. H. Wilson이 우리나라에서 채집하여 아놀드수목원으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1977년 5월 7일 설악산에서 아놀드 수목원의 Spornberg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1989년 9월 20일 미국 국립수목원팀이 오대산으로부터 도입하였다. 현재 미국의 국립수목원, 아놀드 수목원 및 몰튼,



왜성수수꽃다리
(Miss kim Dwarf Lilac)의 개화모습
(사진촬영 : 성균관 대학교 캠퍼스)

모리스 수목원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판매는 Monrovia Nursery, Miniature plant Kingdom, Monrovia Nursery Co. 등 10개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조경수목종 가장 많이 판매되는 관목인 왜성수수꽃다리(*Syringa patulae* 'Miss Kim', Miss Kim Dwarf Lilac)는 1947년 11월 11일 뉴 햄프셔 대학의 E.M. Meader가 미국 적십자협회의 직원으로서 서울 북한산의 백운대에서 털개회나무 종자 12개를 채집하여 뉴 햄프셔 대학의 원예학과에서 발아시킨 7개중에서 선발된 품종이다.

1954년에 命名이 되었으며 미국의 57개 조경수 묘목판매회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로드 아일랜드의 Ball Hill 묘목판매회사에서 수고 40-45cm의 묘목을 주당 \$ 9.00에 수고 45-60cm의 묘목을 주당 \$ 12.00에 판매하고 있으며 미네소타의 Jewell 묘목 판매회사에서는 수고 30cm의 묘목을 주당 \$ 3.50에 수고 45cm의 묘목은 주당 \$ 4.10에 판매하고

있어 'Cheyenne Lilac'과 'Korean early Lilac'에 비하여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76년경 부터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오아의 Heard Gardens 묘목판매회사는 많은 수수꽃다리의 품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Korean early Lilac, Dwarf Korean Lilac, Miss Kim Lilac 모두가 수고 30-45cm의 묘목이 주당 \$ 10.95에, 수고 45~60cm의 묘목이 주당 \$ 12.95의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6. 한국개나리(*Forsythia ko-reana*, *F. viridissima* var. *ko-reana*, Korean Forsythia)

한국개나리는 한국원산으로서 미국으로의 도입은 1917년 아놀드 수목원의 E.H. Wilson이 경기도 광교산으로부터 도입하였으며 현재 뉴욕의 아놀드 수목원, 시카고의 몰튼 수목원 위스콘시 대학교 수목원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현재는 *F. X intermedia*의 보급으로 조경수 묘목판

매회사에서는 거의 판매되고 있지 않다.

품종으로는 1928년 우리나라로부터 채집하여 뉴욕의 Bronx 수목원에 보내졌다가 그 중에서 살아남은 실생 3주 중에서 1주로부터 1939년에 육성된 수고가 작고 잎이 2~3cm 정도로 작은 *F. viridissima* 'Bronxensis'와 'Dwarf Golden Bell'과 같은 왜성형태(Dwarf form)와 Dutch 묘목판매회사에 의해서 육성된 잎이 길고(12cm정도) 꽃이 큰 'Robusta' 등이 있다.

왜성개나리인 *F. viridissima* 'Bronxensis'는 일리노이의 kankakee 묘목판매회사에서는 수고 45cm의 묘목을 1주에서 29주까지는 주당 \$6.80에 30주 이상은 주당 \$6.40에 판매하고 있으며 뉴저지의 Princeton 묘목판매회사(Nursery)에서 수고와 폭이 60-90cm인 묘목이 1주에서 9주까지는 주당 \$12.50, 그리고 10주에서 49주까지는 \$10.75, 그리고 50주에서는 249주까지는 \$9.50에 판매되고 있다. 일리노이의 Synnestvedt 묘목판매회사에서

는 수고 45cm의 묘목이 1주에서 49주까지는 주당 \$12.75에 50주에서 500주까지는 \$11.99에 판매되며, 수고 60cm의 묘목은 1주에서 45주까지는 \$16.00에 그리고 50주에서 500주까지는 \$15.04에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오하이오의 Lake Country 묘목판매회사에는 수고 30cm의 묘목은 1주에서 4주까지는 주당 \$9.00에 그리고 5주에서 24주까지는 주당 \$7.50에 25주 이상의 경우는 주당 \$7.00에 판매하며 수고 45cm의 묘목은 1주에서 4주까지는 주당 \$12.00에 4주에서 24주까지는 주당 \$9.50에 25주 이상의 경우는 주당 \$9.00에 판매하며, 그외 콜로라도 브링톤(Brington)의 Little Valley 묘목판매회사와 Baley Nurseries, Inc., Zelenka Nursery, Co., 등 37개 조경수 묘목판매회사에서 여러 품종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자생지로는 함경남북을 제외한 전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는 왜성개나리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고 있는데, 이 수목의 원산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악산, 북한산 등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개나리(*Forsythia saxatillis*)는 꽃이 작고 많이 달리는 특성을 지닌 수종으로 1924년에 아놀드 수목원으로 도입되어서 *Forsythia intermedia*와 *Forsythia saxatillis*의 교배로 1941년 아놀드 수목원의 karl Sax 박사에 의해 Arnold Dwarf (*F. X intermedia* 'Arnold

Dwarf')라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다. Annold Dwarf는 수고가 작고(6년생의 수고가 약 90cm정도) 수형이 덩굴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각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Bailey Nurseries, Inc., Zlenka Nursery, Inc., Jewell Nurseries, Inc., Little Vally Nursery 등 27개 조경수 묘목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Bailey 묘목판매회사에서는 수고 45cm의 묘목을 주당 \$3.85에, 수고 45cm의 묘목은 주당 \$4.60에 판매하고 있으며 Congdon weller 묘목판매회사에서는 수고 30cm의 묘목은 주당 \$2.50에, 수고 45cm의 묘목은 주당 \$3.95에 판매하고 있다.

몬타나의 Lawter Nursery, Inc. 묘목판매회사에서는 수고 20~30cm의 묘목을 주당 \$1.70에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Jewell 묘목판매회사에서는 수고 30cm의 묘목을 주당 \$2.55에, 수고 45cm의 묘목을 주당 \$3.80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고 60cm의 묘목은 주당 \$4.55에 판매하고 있다.

7. 분꽃나무(*Viburnum carlesii*, Koreanspice Viburnum)

분꽃나무는 한국원산으로서 1902년 J. G. Jack에 의해서 미국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1985년 9월 22일 미국 국립수목원팀이 채집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중부 산록(山麓)



왜성개나리
(사진촬영 :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의 양지에서 자생하는 낙엽관목으로서 한국원산의 분꽃나무는 꽃의 바깥부분은 붉은 핑크색이며 안은 흰색이며 개화기간이 길고 향기가 짙으며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강해 미국에서 조경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국립수목원과 뉴욕의 아놀드 수목원, 그리고 시카고의 몰튼 수목원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종자로부터 1950년 Leslie Slinger에 의해 Slieve Donard Nursery에서 개발, 육성된 것으로 처음에는 꽃이 핑크색이나 하얀색으로 변하는 'Aurora'와 더 짙은 핑크색을 지닌 'Diana', 꽃의 특징이 'Aurora'와 비슷하나 성장력이 강한 'Charis'의 3 품종과, 1950년 C. Hoogendoorn에 의해 육성된 품종으로서 성장이 더디고 수형이 Compact한 'Compactum' 등 4품종이 있다.

판매는 Bald Hill Nurseries, Inc., Imperial Nurseries, Princeton Nurseies, Lake Country Nursery, Inc., 일리노이의 kankakee Nursery, Co. 등 35개 조경수 묘목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북 코린스의 Congdon weller 묘목판매회사에서 분꽃나무(*V. carlesii*)를 수고 30cm 묘목은 주당 \$ 2.95에, 수고 45cm의 묘목은 주당 \$ 5.95에 판매하고 있으며, 'Compactum'은 수고 30cm의 묘목을 주당 \$ 3.75에, 수고 45cm의 묘목은 주당 \$ 5.50에 판매하고 있다.

교잡종으로는 1914년 *V. carle-*



분꽃나무 (사진촬영 : 일리노이대학교 캠퍼스)

sii 와 *N. utile*의 교잡으로 개발된 반상록성인 *V. X burkwoodii* 그리고 1932년 영국의 Burkwood와 Skipwith Nursery에서 *V. carlesii* 와 *V. macrocephden*의 교잡으로 개발된 꽃이 크고 핑크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V. X carlcephalum*, 그리고 1920년에 아놀드 수목원의 William H. Judd에 의해 육성되어 1929년에 처음 꽃을 피워 1935년에 명명된 *V. carlesii*와 *V. bitchiuense*(섬분꽃나무)의 교잡으로 개발된 *V. X juddii*, 1953년 *V. carlesii*와 *V. X carlcephalum*의 교잡으로 개발된 *V. X Cayuga*, 그리고 1962년에 *V. utill* 와 *V. carlesii*의 교잡으로 개발된 *V. X chespeake* 5품종이 있다.

교잡종인 *V. X burkwoodii*, *V. X carlcephalum*, *V. X chespeake*는 오하이오의 Lake Country에서 수고 45cm의 묘목을 1주에서 4주까지는 주당 \$ 20.00에 5주에서 24주까지는 16.50에 25주 이상은 주당 \$ 15.50에 , 그리고 수고 60cm의 묘목은 1주에서 4주까지는 주당 \$ 23.50에, 5주에서 24주까지는 주당 \$ 19.00에 25주 이상은 주당 \$ 18.00의 같은



분꽃나무(품종 명 'Compactum')
(사진촬영 : 보스톤 Arnold 수목원)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V. X juddii*는 오레곤의 Imperial 묘목 판매회사에서 수고 40-45cm의 묘목이 주당 \$ 8.75에 판매되고 있으며 *V. X burkwoodii*는 수고 45-50cm의 묘목이 주당 \$ 8.75에, 수고 50-60cm의 묘목은 주당 \$ 10.25에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북, 충북, 황해도, 평남북, 강원도 등지에 자생하고 있는 섬분꽃나무(*Viburnum bitchiuense*, *Viburnum carlesii* var. *bitchiuense*, *Bitchiu Viburnum*, *Yeddo Viburnum*)는 1909년 미국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아놀드 수목원, 모리스 수목원, 몰튼 수목원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남 캐러라이나의 Woodlanders 조경수 묘목판매회사에서 주당(포토 1/2-1갤런기준) \$ 8.00에 판매되고 있다.✎